

제7회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2)

비엔날레 기간 : 2012년 9월 11일(화) ~ 2012년 11월 4일(일)

개막식 : 2012년 9월 11일(화)

프레스 오픈 : 2012년 9월 10일(월)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및 인근지역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시립미술관

총감독 : 유진상

협력큐레이터 총 4인 <유키고 시카타(Yukiko Shikata) 외 3인>

전시제목 : "Spell On You"

전시주제에 관하여

‘제 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1) 뛰어난 당대의 기술기반미술 (technology based art)의 소개와 저변 확대, 그리고 2) 그것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기술적 함의(含意)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대중의 이해와 관심의 제고, 3) 새로운 혁신적 지평의 확대와 창조적 가능성의 발견이라는 이 행사의 원래의 목적이자 미션에 충실한 뉴미디어 아트 전시를 기획,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9월에 열릴 ‘제 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 시티)’ 주제는 영문으로 ‘Spell on You’로 정해졌다.

이 주제는 미국의 흑인가수 스크리밍 제이 호킨스(Screaming Jay Hawkins)의 50년대 노래인 ‘I put a spell on you’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나는 당신(들)에게 주문을 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영문제목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인용의 출처가 된 노래의 극적인 느낌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국제 비엔날레로서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쉬운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Spell’과 ‘주문’의 어감과 의미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주제의 키워드인 ‘Spell’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금방 떠올릴 수 있듯 ‘주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원래 이 노래의 후렴 가사는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 나는 당신에게 주문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I don't care, if don't want me. I'm yours right now. I put a spell on you. Because you're mine.)”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주문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집착, 소유를 이루기 위한 마법적이고 초월적인 권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둘째로, ‘Spell’은 개인적 문장(personal sentence)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소외되고 입자화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상대방(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Spell’은 일종의 호출(call)로서, 집단 안에서 개인이 구사하는 특별한 문장과 경로들을 함축한다. 예술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spell’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는 탁월한 의미에서의 개인(individual *par excellence*)이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자신만의 ‘spell’을 구성하고 그것을 사회 속에서 순환시키며 그것을 통해 불가능한 소통의 내용들을 매개한다.

셋째로, ‘spell’은 현대의 과학기술이 보여주는 ‘마법적’ 권능을 상징한다. 실제로, 현대 과학기술의 핵심적 요소인 컴퓨터는 그것을 구동하는 기본적인 문장들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이것을 ‘명령어(command)’라고 부른다. 보통 이 문장들은 단 한자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으며 정확한 철자(spelling)만을 요구한다. 즉 현대 과학기술은 명령어를 기반으로 하는 호출(spell)의 구조 위에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은 명령의 기술이며, 마법적인 호출의 기술이기도 하다.

넷째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화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소통기술’(technology of social communication)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기술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수집에 의거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술 및 현실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 등을 통해 쇼핑, 오락, 광고 뿐 아니라 방송, 교육, 문화 콘텐츠 생산, 정치적 선전, 사회적 인프라 및 시장 구축 등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Spell on you’에서 ‘you’ 역시 다양한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도 있지만, 어떤 집단일수도 있고 나아가 신(神)이나 세계, 우주로 확대해석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상들에게 거는 주문 혹은 마법적 기술은 세계와 사회 안에서, 삶 속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주문을 거는 주체는 ‘나 (I)’이기도 하지만 주문을 거는 마법사일수도 있고, 예술가나 과학기술을 만들어내는 과학자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나’는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집요하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을 침착하게 궁구(窮究)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하는 마법은 일종의 ‘스토킹(stalking)’ 즉 주관적 권력의 행사를 떠올린다. SNS에서 이루어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견의 제시와 표현은 개인들이 행사하는 소통권력에의 의지와 표현으로 읽힐 수 있으며, 광고의 카피와 언론의 제호(題號)들 역시 또 다른 권력의 표현으로 읽히게 된다. 미디어 기술은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한다. 아랍의 민주화, 일본의 재난소식, 반-자본주의 시위, 한국을 위시한 전 세계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적인 통계조사는 모두 이러한 기술적 환경변화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뉴미디어 아트는 당대의 기술적 도구들을 통해 ‘탁월한 개인’으로서의 예술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vision)을 가시화한다. 그러므로 뉴미디어 아트의 핵심 역시 다른 예술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비전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르셀 뒤샹에서 백남준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예술가들이 동시대의 예술적 매체들을 새롭게 혁신해 온 것은 단지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이 예술가들이 당대의 세계와 사회 속에서 도출해 낸 깊이 있는 비전들 때문이다. 오늘날 뉴미디어 아트는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급진적인 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술은 그것에 내재된 커다란 의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뉴미디어 아트는 긍정과 회의가 가장 극명하게 교차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Spell on you’는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제 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의 기획방향을 요약하는 주제이다.